

생생리포트

■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

박희석(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박희석(부연구위원·hspark@sdi.re.kr)
박지희(연구원·nanaplia@sdi.re.kr)

- 최근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비 증가율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국 GDP의 22.6%(2005년 당해년가계 기준)를 차지하는 서울지역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심층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음
-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기를 알아보고 향후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조사는 I. 서울지역 경제 현황, II. 시민의견조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음
- 설문방법은 우리연구원의 메일링 서비스 가입자(3만7,000명)와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자(15만1,771명)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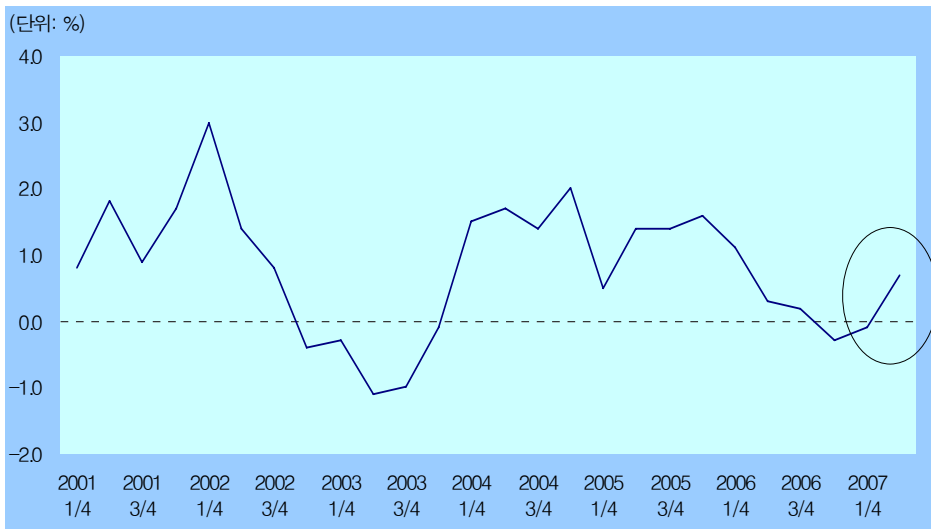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보지원팀 강향숙 선생님과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담당자, 그리고 온라인 설문에 응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서울지역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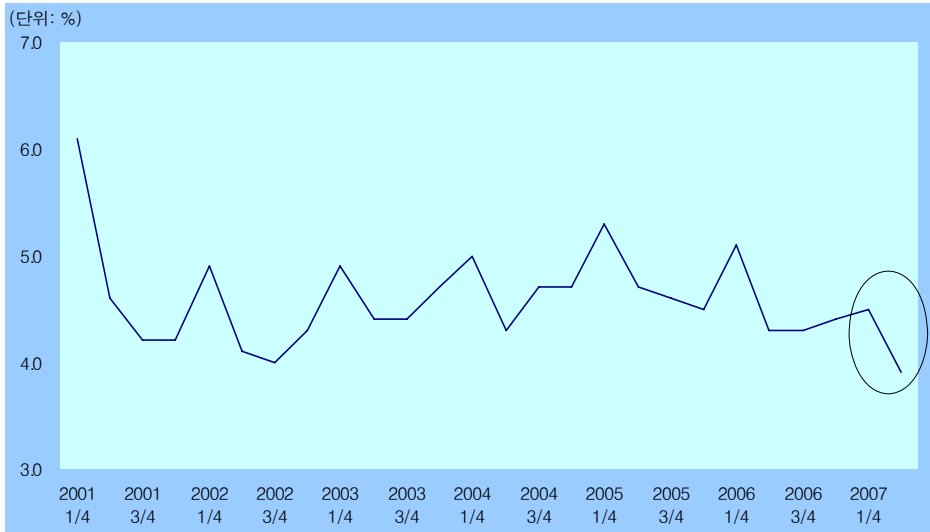
1. 고용

- 2001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 서울시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비 기준 2003년 2/4분기에 -1.1%로 저점을 찍은 후 2006년 3/4분기까지 상승세를 유지함
- 2004년 1/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던 취업자수는 2005년 4/4분기 이후 증가세가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6년 4/4분기에는 취업자수가 감소함
- 2006년 4/4분기에 전년동기비가 -0.3%를 보인 후 2007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비 0.7%로 증가세로 돌아섬
- 청년층(15 ~ 29세) 취업자수는 2004년 4/4분기에 전년동기비가 0.2%의 증가를 기록한 이후 전년동기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6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5%의 하락을 보인 후 전년동기비의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출처: 통계청(전년동기비 증감률임)

<그림 1> 서울시 분기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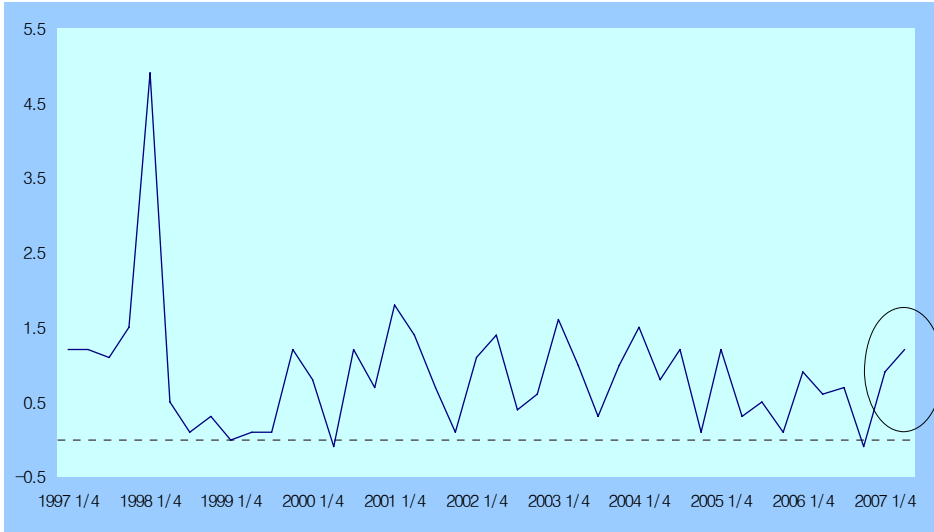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실업률은 원지수임)

<그림 2> 서울시 분기별 실업률

- 서울시 실업률은 2001년 1/4분기에 6.1%의 높은 실업률을 보인 이래로 감소 혹은 보합상태를 보이며, 2007년 2/4분기 실업률이 3.9%로 분석기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15 ~ 29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추이와 비슷한 가운데 2006년 4/4 분기에 9.3%이던 실업률이 2007년 2/4분기에 6.5%를 기록하며 하락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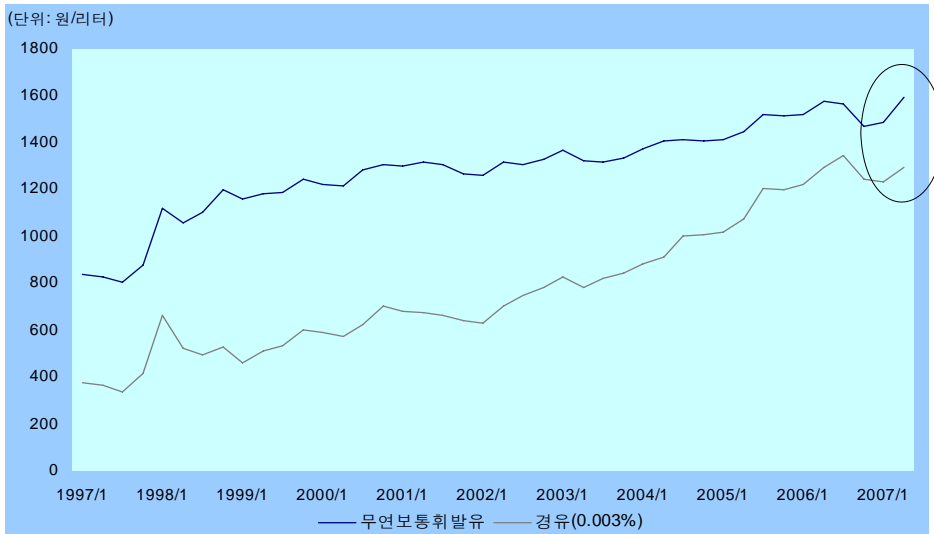
2. 물가

-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동향은 2006년 4/4분기에 전분기비가 -0.1%를 나타낸 후, 2007년 들어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이어짐
-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전분기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항목은 철도이용료로 전분기대비 8.1%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교통수단이용료의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6.6%의 상승률을 보임
- 또한 고등교육 항목은 2007년 2/4분기의 전분기대비 상승률이 4.9%로 교육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2007년 1/4분기의 전분기대비 상승률 2.6% 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



출처: 통계청 (전분기대비 증감률)

<그림 2> 서울시 소비자물가 동향



출처: 한국석유공사

<그림 2> 서울시 분기별 유가 동향

- 교통수단이용료와 고등교육 항목의 전분기대비 상승률은 총지수의 전분기대비 상승률 1.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의 유가 동향을 보면, 무연보통휘발유와 경유 모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07년 2/4분기 무연보통휘발유는 1,599원/리터, 경유는 1,300원/리터로 나타남
- 1997년 1/4분기에 840원/리터 이던 무연보통휘발유가격과 378원/리터 이던 경유가격은 각각 2배, 4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유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차량연료및운영비 항목이 2007년 2/4분기에 전분기대비 4.7%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무연보통휘발유가격은 분석기간중 1997년 3/4분기에 807원/리터 로 가장 낮았고, 2007년 2/4분기에 1,599원/리터 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유가격은 분석기간중 1997년 3/4분기에 340원/리터 로 가장 낮았고, 2006년 3/4분기에 1,35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II. 시민의견조사

대상: 서울시민

방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메일링 서비스 가입자와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7-9-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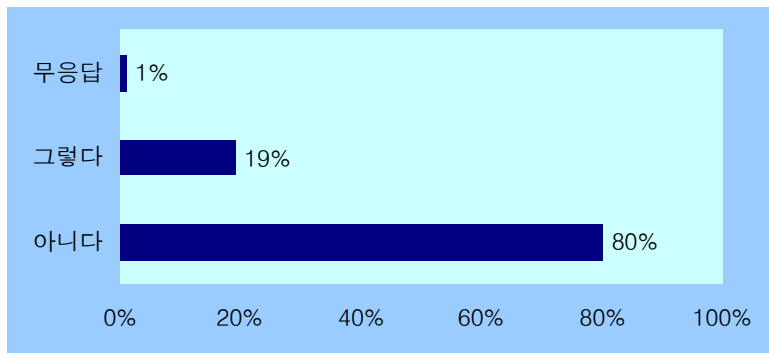
기간: 2007년 8월 20일 - 8월 25일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95명이 응답하였음

- 조사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메일링 리스트 회원(3만7,000명)과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15만1,771명)를 대상으로 함
-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 1,497명(68%), 여자 698명(32%)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17%(373명), 30대가 32%(698명), 40대가 24%(531명), 50대가 17%(376명), 60대 이상이 10%(217명)로 구성됨

○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는 응답이 19%, ‘아니다’ 는 응답이 80%를 차지함

- 최근 경기회복에 대해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판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최근 경기 회복 여부

<표 1> 최근 체감 경기

구분		유효응답수	매우 나쁨	조금 나쁨	비슷함	조금 좋음	매우 좋음
연령별	20대	371	27.5	41.5	21.8	8.9	0.3
	30대	697	29.4	34.6	26.8	8.2	0.9
	40대	526	39.0	33.8	17.9	8.7	0.2
	50대	374	47.3	27.5	17.4	7.0	0.5
	60대이상	216	42.1	27.8	22.2	7.4	0.0
월평균소득별	100만원 미만	386	45.9	27.7	18.7	7.5	0.0
	100 ~ 200만원	584	39.2	37.0	18.3	5.0	0.3
	200 ~ 300만원	528	32.4	33.0	26.5	7.8	0.4
	300 ~ 400만원	352	29.5	38.9	19.6	10.5	1.1
	400만원 이상	334	29.6	30.5	26.0	12.6	0.6

주: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

- 현재 체감하는 경기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나쁨’ 이 36%, ‘조금 나쁨’ 이 34%, ‘비슷함’ 이 22%, ‘조금 좋음’ 이 8%, ‘매우 좋음’ 이 0.0%로 나타남
 - 현재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응답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여 체감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체감경기에 대해 연령별,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 20대와 30대는 체감경기가 조금 나쁘다는 응답이 각각 41.5%와 34.6%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39.0%, 47.3%, 42.1%를 각각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소득에 따른 응답자들의 최근 체감경기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73.6%가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100 ~ 200만원의 경우는 76.2%가, 200 ~ 300만원의 경우 65.4%가, 300 ~ 400만원의 경우 68.4%, 400만원 이상의 경우 60.1%가 각각 최근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함
 - 소득별로 체감경기 상황은 월평균소득이 100 ~ 200만원인 경우가 체감경기가 나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과 300 ~ 400만원인 경우가 그 뒤를 이음
 - 한편,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00~ 200만원인 경우가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체감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100만원미만의

경우가 100 ~ 200만원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표 1>)

○ 앞으로의 경기 변화에 대한 질문에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6%,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6%,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7%로 나타남

-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응답한 시민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50대는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9.2%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남
- 각각의 연령대별로 보면, 향후 경기에 대해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그 뒤를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에 따라 향후 경기 변화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보면, 연령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대에서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 뒤를 이음
- 또한 월평균소득이 100 ~ 200만원인 경우에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18.8%로 다른 소득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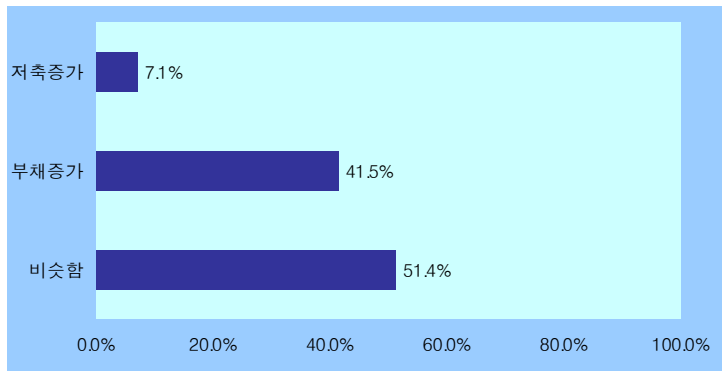
○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798명은 그 이유에 대해 정치사회적인 안정(32.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막연히 경기가 호전될 것 같다는 이유가 27.8%로 그 뒤를 이음

<표 2> 향후 경기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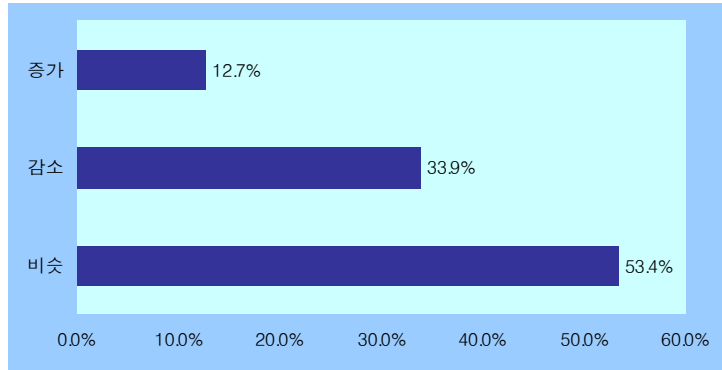
구분		유효응답수	크게 좋아짐	조금 좋아짐	비슷함	조금 나빠짐	크게 나빠짐
연령별	20대	371	4.6	30.7	49.1	10.5	4.6
	30대	697	3.6	30.8	47.6	12.5	4.9
	40대	526	3.2	35.7	45.2	10.3	5.3
	50대	374	1.6	33.7	44.9	9.6	9.6
	60대이상	216	2.8	38.9	42.1	10.2	4.6
월평균소득별	100만원 미만	386	4.1	30.1	48.7	8.8	8.3
	100 ~ 200만원	584	2.1	31.0	47.6	11.8	7.0
	200 ~ 300만원	528	3.6	35.8	44.9	11.7	3.8
	300 ~ 400만원	352	3.7	35.8	45.7	9.7	4.3
	400만원 이상	334	3.3	34.4	44.0	11.7	5.1

주: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

- 서울 시민들이 최근 체감하는 물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88%가 올랐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이 10%, 내렸다는 응답이 1%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물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시민 1906명을 대상으로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해 41%가 LPG, 휘발유 등의 유가를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유가 다음으로 영향을 준 품목으로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요금, 전철요금 등의 공공 서비스부문이라고 응답함
- 6개월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저축및부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저축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7.1%, 부채가 늘었다는 응답이 41.5%, 비슷하다는 응답이 51.4%로 나타남
 - 응답자 중 부채가 증가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가계수입의 변화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12.7%, 감소했다는 응답이 33.9%, 비슷하다는 응답이 53.4%로 나타남
 - 가계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737명 가운데 70.8%는 앞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겠다고 하였으며, 수입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1161명 가운데 44%가 소비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저축및부채 상황



<그림 3> 1년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수입의 변화

- 또한 가계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앞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29.4%를 차지하여 앞으로의 소비지출 계획은 부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소비지출 계획에 대해 연령별, 소득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음

- 모든 연령대에서 앞으로 소비지출을 조금 줄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대와 60대 이상은 소비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각각 56.3%와 54.0%로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별로 보면,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응답자의 61.2%가 앞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100 ~ 200만원인 경우는 향후 소비지출을 크게 줄이겠다는 응답이 각각 26.2%와 20.5%로 다른 소득대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비율을 보임
- 또한 월평균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응답자의 17.1%만이 소비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여 줄이겠다는 응답(43.1%)보다 크게 낮은 비율을 나타냄

○ 소비지출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341명에게 어떤 항목에 대해 늘릴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주로 자신에 대한 투자에 많은 지출을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341명 가운데 소비지출을 늘일 경우 교육 및 자기개발 비용을 1순위로 늘리

〈표 3〉 향후 소비지출 계획

구분		유효응답수	크게 늘림	조금 늘림	비슷함	조금 줄임	크게 줄임
연령별	20대	373	1.9	14.2	30.3	35.7	17.4
	30대	698	2.4	16.6	33.1	33.0	14.5
	40대	531	1.9	15.1	33.1	33.3	16.2
	50대	376	1.1	9.3	33.0	34.8	21.5
	60대이상	217	0.0	8.8	35.9	40.6	13.4
월평균소득별	100만원 미만	386	1.6	8.0	28.0	35.0	26.2
	100 ~ 200만원	584	1.9	14.6	28.4	34.2	20.5
	200 ~ 300만원	528	2.1	15.9	34.5	35.2	12.1
	300 ~ 400만원	352	1.1	14.2	37.8	33.2	13.4
	400만원 이상	334	1.5	15.6	39.2	35.0	8.1

주: 유효응답수는 무응답수를 포함한 값임

겠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국내의 여행비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0.9%로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을 줄인다고 응답한 1,121명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가계부채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으며, 청년실업, 조기퇴직 등에 의한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응답이 14.8%, 고령화로 노후생계를 위해 저축을 늘려서라는 응답이 14.5%로 비슷한 비율을 보임
- 소비지출을 줄인다면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외식 및 식생활 관련 비용을 1순위로 줄이겠다는 응답이 4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자동차 유지비, 택시비 등과 같은 교통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11.2%, 친목, 사고 등 개인교제 비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10.7%로 그 뒤를 이음
- 소비활성화를 위해 어느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2195명의 응답자 가운데 41.2%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확보를 꼽았으며, 대출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만기연장이 13.1%, 정치사회 안정이 12.9%,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12.4%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남